

월간 KOREA TODAY 시사와 경제

창간50주년

오늘의 한국



메르스·광우병 괴담 등 공포 재생산에 병드는 사회

물질만능이 빚은 비극, 가족공동체 붕괴

임진왜란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鄭文孚)-(2)

제54회 통영한산대첩축제...5일간 '전군, 출정하라'

작아서 더욱 아름다운 섬 <소무의도>

7

2015



물감으로 그린 듯한 작품에 가까이 다가서면 깜짝 놀란다. 물감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수다. 너무나 정교해 한 발 떨어져 보면 금방 물감이 될 것처럼 보이는 생생함에 눈길을 멈추게 된다. '픽셀'로 말하는 함경아(47)의 작품에는 북한주민과의 '소통'과 '예술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 SMS series in camouflage / Money never sleeps 01_2012-2013



▲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04_2013-2014

함경아 '픽셀'로 말하다 北주민과 한호흡으로 '소통' 남북 협업 작품으로 분단의 역사와 고통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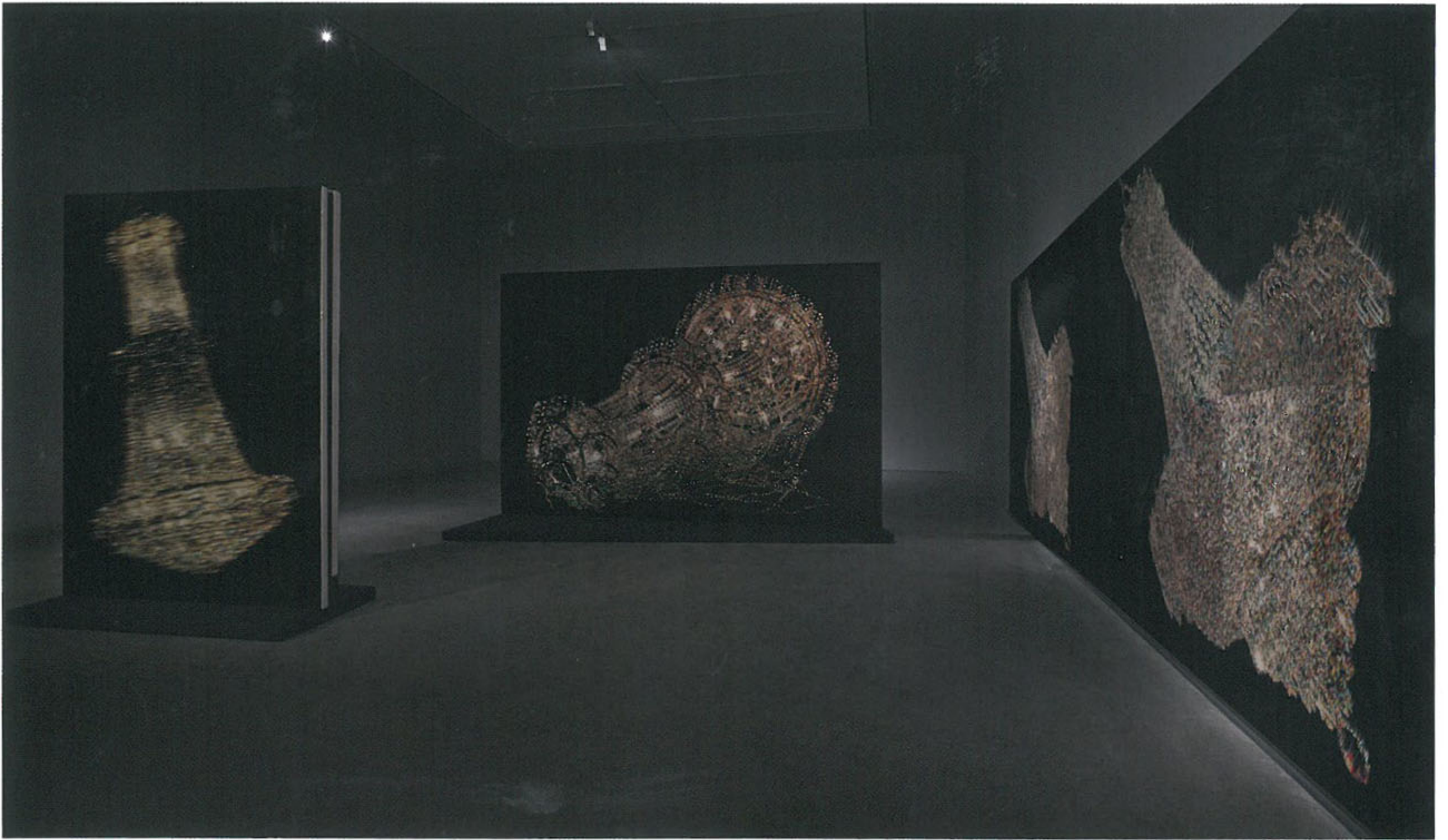
‘예술은 소통’이다.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작품들은 모든 경계를 넘은 채 밝고 화사한 ‘픽셀’로 관객을 맞고 있다. 작가 함경아가 6년 만에 국제갤러리(회장 이현숙)를 통해 나들이를 했다.

국제갤러리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들을 개인적 삶의 실천적 문제로서 천착해 온 작가 함경아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녀의 첫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 2관 및 3관에 걸쳐 대규모 신작 자수회화 시리즈는 7월 5일까지 이어진다.

화려함 속에 위장된 은유적 메시지 담겨

K2에 전시되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해체된 형상과 군사적 위장술을 연상시키는 위장된 은유적 단어, 그리고 대중가요 가사들이 혼합된 화려한 색채의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작품



▲ Installation View K3_high res_3_by Keith Park

들 속의 이미지들은 은연중에 지배 권력에 대한 모종의 비평적 암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디지털 픽셀을 강조하거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와해시키고 재구성함으로써 작가는 사회 구조 속에 반영된 개인의 기억들 및 감정의 편린들의 비-가시적 측면들을 시각화하고 있다.

함경아의 작품들 속의 모티브들은 현대의 시대적 사건들이 개인의 사적인 경험과 조우하였을 때 초래되는 흥미로운 연상들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이 모티브들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사회로부터 번번이 무시되거나 묵인되어온 진실들을 재조명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함경아는 현상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보류하는 대신 기존의 표상들에 새로운 해석의 층위들을 투영하고 양가적인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사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새로운 평면을 구성한다. 최근에는 이를 작품제작과정의 일환으로 포용함으로써 다시 창조적 구조 안에 흡수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

작가가 천에 구도하고 북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번 전시는 분단된 조국의 남북 협업 작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함경아 작가는 왜 북한 공예가들의 손을 빌려 작품을 해 보고 싶었을까. 그는 “2008년 집 앞에서 우연히 북한 뼈라를 받



▲ Kyungah Ham_Portrait_high res_2_by Keith Park



▲ 국제갤러리 전경



견한 적이 있다. 아직도 그런 게 있다니 놀라웠다. 나도 예술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뭔가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다 못해 시(詩)라도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작가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국한해서 작품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예술이 지닌 철학적 관점, 상상의 세계, 다층적인 지점에서 수용되길 원한다”고 했다.

서로 다른 체제와 체제를 건너는 작업인데 그가 메시지의 충구를 겨누는 대상은 남한이기도 하고, 북한인 거 같기도 하다. 작가는 여러 버전으로 내놓은 상들리에 소재에 대해 “상류층의 공간에서 권위와 욕망을 드러내는 장식적인 구조물이 상들리에”라며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제국주의 열강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강의 각축 결과,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또 작가는 ‘자수’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접근 가능해진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게 바로 자수였다”며 “작품이 북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올 때 예상과 다

르거나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진 않았지만, 그 중엔 예술적인 수준이 높은 것들도 많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작업을 통해 내가 느낀 감동을 북한의 공예가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업은 의외로 단순하다. 일단 함경아 작가가 천에 이미지를 그려 넣고 디지털 프린트를 한다. 이 프린트는 제3자에 의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북한 자수공예가들에게 은밀하게 건네진 후 손자수로 한 땀 한 땀 작업된다. 디지털프린트 천에 칠해진 색 위에 자수가 수놓아져서 모아져 돌아오는 식이다. 몇 명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했는지는 함경아 작가도 모른다. 색감이 현란하고 짙은 데는 이유가 있다. 작가가 파스텔톤으로 보내지만 색감은 진해져 오는데 북한 자수공예가들은 혼린색보다 진하고 강한 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 다시 작가에게 작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보통 1년 반~2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중간에 압류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함경아는 2008년 말부터 이러한 작업을 해 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함경아의 작품들은 제작을 하는 북한주민들과의 대안적인 ‘소통’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산출하는 욕망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관계들을 제작과정에 투영하고 있다.

때문에 자수 회화는, 주제에 있어 형태와 내용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 복잡다단한 작품 제작의 과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미술로서의 실험적 성격을 띠고 동시에 미학적이고 감각적인 회화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미묘한 형태로 양식화 되었다. 함경아의 작업은 이미지로서의 층위를 벗어나 사실적인 의미가 다른 층위들로 번져갈 때 그본질적인 미학적 탐구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자수와 상들리에 '픽셀'은 분단의 역사 함축

특히 K3에는 총 5개의 대규모 상들리에 이미지의 자수 회화 연작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가 설치됐다. 작가노트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어느 날 작가는 우연히 TV를 통해 나오는 북한 카드섹션 광경을 보게 된다. 당시 그 광경은 선전용 문구를 포함, 김일성의 얼굴을 위시한 다양하고 놀라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내 섹션의 한 장면인 권총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록하는 방송카메라가 클로즈업하는 찰나, 당시 컬러차트를 쥐고 있던 소년 중 한 명이 잠깐 얼굴을 내보이고는 재빠르게 컬러차트 뒤로 몸을 숨겼다. 소년이 앞에서 지휘하는 자의 사인을 보기 위해 얼굴을 보이고는 다시 컬러차트 뒤로 숨었던 그 시점은 그 소년이 전체 권총 이미지의 한 픽셀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화려한 상들리에에는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열강들의 문화적 영향력과 그들의 사회적 공간을 연상시킨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중에 흔들리거나 바닥에 추락한 상태는 거대 권력, 이념이나 담론의 불완전성, 추락이나 붕괴를 은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함경아 작가에 따르면, 희미한 불빛과 연약하게 무너진 상들리에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념적 갈등과 분단 상황, 그것들을 둘러싼 역설적 관계들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작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상들리에지만 이 이미지의 이면에는 한 픽셀, 한 땀 한 땀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바친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과, 그것이 함축하는 분단의 역사를 살아 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 마치 컬러차트 뒤에 있던 숨어있던 소년처럼. 이것이 바로 상들리에의 형태를 형성하는 선을 사라지게 하고, 색과 픽셀, 곧 실과 한 땀으로만 보일 때까지 확대하여 디자인하게 된 이유이다.

작품 통해 물리적 장벽 뛰어넘는 대화 주도

함경아는 회화,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를 통해 비-본질적이고 경도된 맥락의 권력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왔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그녀는 세간의 정치적 상상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상상의 과도한 정치성을 유희적으로 접근한다. 동시에 한국의 사회적 구조와 현상이 개인적인 삶에 개입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대 미술의 표현과 전개 속에서 어떻게 병치될 수 있는지 타진한다.

특히 그녀의 대표적인 자수 회화 연작은 형형색색의 실크를 표현양식으로 다룸으로써 그 속에 내포된 정치적 메시지를 은폐한다. 함경아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대화를 주도해왔다. 작가의 작품은 갈등


이라는 주제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반영하며 프로파간다, 액티비즘, 그리고 개인의 기억 사이의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혼성을 구축한다.

함경아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회화과 졸업 이후 뉴욕 SVA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999년 서울 갤러리 루프에서의 《풍경이 있는 방》, 2008년 서울 쌈지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게임》, 2009년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의 《욕망과 마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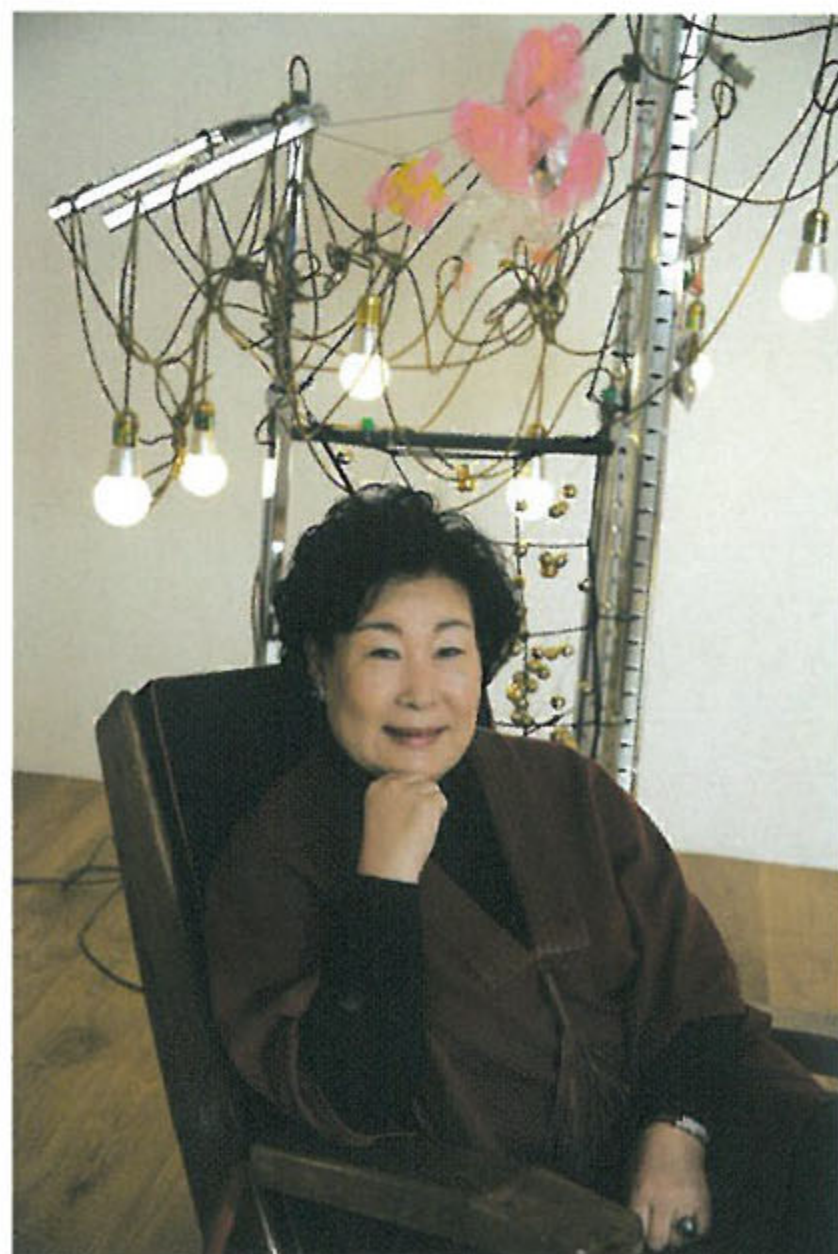
기타 주요 그룹전은 비엔나의 빈 루드비히 현대미술재단(2010),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13, 독일 본의 쿤스트뮤제움 본, 그리고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2014)를 들 수 있다. 또한 작가는 2012년 제 9회 광주 트리엔날레와 제 7회 리버풀 비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다.

함경아를 초대한 국제갤러리 이현숙 회장은 누구

함경아를 초대한 서울 소격동에 위치한 국제갤러리는 이현숙 회장(65)이 설립한 지 30년 된 대표적 화랑이다. 국제갤러리는 국내 300여 개 갤러리 가운데 2년째 매출 선두를 유지할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성공가도를 걷고 있다.

이 회장은 단색화를 국제 미술시장에 내보여 최근 시장의 활기를 이끌어낸 주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지난해 말 세계적 미술매체 아트넷이 선정한 '2014 가장 존경받는 아트딜러'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글 이현진 기자 |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 국제갤러리 이현숙 회장